

고 1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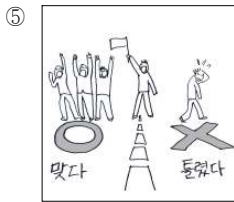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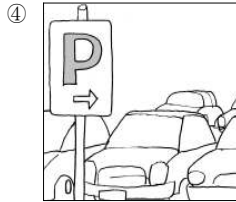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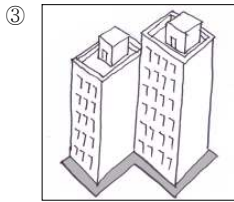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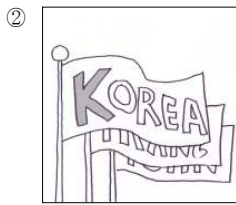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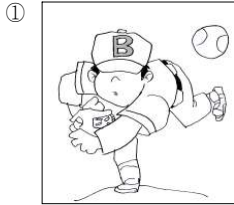
수험번호

1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수험 번호,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사의 마지막 질문에 부합하는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2. (물음) 이 뉴스를 듣고 알 수 없는 것은?

- ① 타이탄의 생성 과정
- ② 타이탄 대기의 성분
- ③ 타이탄 표면의 모습
- ④ 호이겐스호의 탐사 목적
- ⑤ 호이겐스호의 착륙 과정

3. (물음) 강연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 ① 도시화로 인해 소외된 서민층의 서글픔
- ② 골목 문화를 통한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
- ③ 주차 전쟁으로 인한 도시 골목의 비정함
- ④ 주거 환경 개선으로 인한 도시 골목의 확일성
- ⑤ 정신적 가치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4. (물음) 발표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아 : 통신 언어의 장점도 인정하면서 균형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 ② 영호 : 요즘 사용되는 통신 언어의 실례를 들어줌으로써 청자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③ 정수 : ‘통신 언어 사용을 반대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 주장을 선명하게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 ④ 유진 : ‘아버지께 질문했다가 꾸중을 들은 일’을 소개해줌으로써 내용이 더욱 현장감 있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 ⑤ 소라 : ‘세대간의 단절, 국어 질서의 파괴’ 등과 같이 통신 언어의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여 주장을 적절히 뒷받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 (물음)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1점]

- ① 진행자는 주관적 해석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
- ② 진행자는 교수와 반대의 입장에서 대화를 이끌고 있다.
- ③ 진행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펴고 있다.
- ④ 교수는 현상에 대한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 ⑤ 교수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6. (물음) 대담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교수의 진단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최근 보도에 의하면 연상 여성과 연하 남성의 결혼에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① 남성은 실리론, 여성은 낭만을 추구한다.
- ② 남성의 사회적 활동이 여성보다 왕성하다.
- ③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시선을 더 의식한다.
- ④ 남성은 연상 여성을 도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⑤ 남성은 연상 여성을 심리적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10. 실의에 빠진 친구에게 인터넷 편지글을 보내고자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1점]

— <보 기> —

<조건>

- 용기를 북돋우는 내용을 담을 것
-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할 것
-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낼 것

- ① 누구에게나 고민은 있어. 위인들이 성공하기까지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
- ② 실의에 빠진 너의 모습을 보니 나도 걱정이 많이 된다. 하지만 너의 재능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니? 지난번 교내 장기 자랑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애가 너였잖아.
- ③ 친구야, 노력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실망한 네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모진 비바람을 이겨내고 피어난 들꽃처럼 너의 꾸준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야.
- ④ 사랑하는 친구야, 고민이 많지? 나도 겪어 본 적이 있어서 네 심정을 알 것 같아. 때로는 문제를 멀리서 바라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한결 나아질 거야.
- ⑤ 대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잘 자라는 이유는 중간 중간 성장을 멈출 때 생기는 굽은 마디가 있기 때문이래. 지금 너의 어려움도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거야. 이제 곧 쭉쭉 자라게 될 거야.

11. <보기>의 이야기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바닷가에 펠리칸 새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었다. 이 새들은 관광객이 던져 주는 갖가지 먹이를 먹으며 편안히 살아갔으나, 시 당국에서는 먹이로 인해 바닷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펠리칸에게 먹이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날마다 던져 주는 먹이만을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던 펠리칸은 점차 굶어 죽기 시작하였다.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바다로 돌진하면서 고기를 잡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고기를 잡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것이었다. 이 문제를 논의하던 시 당국에서는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야생의 펠리칸들을 잡아다가 그들과 함께 섞어 놓자는 것이었다. 그 후로부터 던져주는 먹이만을 받아 먹던 펠리칸들은 야생의 펠리칸들과 같이 스스로 물 속의 고기를 잡아 먹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 ① 나는 이 이야기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겠어. 외국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데만 익숙해져서 자체의 기술 개발은 등한 시하는 현실을 비판해 보겠어.
- ② 나는 생각된 부분을 보충해 보겠어. 야생의 펠리칸을 따라 시 행착오를 겪으면서 능력을 회복해 가는 내용을 넣어줌으로써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하겠어.
- ③ 나는 이 이야기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어. 노력해 보지도 않고 굶어 죽어 가는 펠리칸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 하여, 펠리칸의 어리석음을 부각시켜 보겠어.
- ④ 나는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써보겠어. 야생성을 없앨 목적으로 펠리칸에게 먹이를 던져 준 관광객들의 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전개해 보겠어.
- ⑤ 나는 이 이야기의 서술 대상을 바꿔 보겠어. 펠리칸을 청소년으로 바꾸어, 청소년들이 부모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을 개발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해 보겠어.

12.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발레리나 홍나라는 서양 사람들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프리마돈나로 우뚝 선 의지의 인물이다. ㉡오늘이 있기까지의 그녀의 삶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언제나 저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해서 공연을 포기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상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연습을 더 많이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재능이 우수한 발레리나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연습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연습이 오늘의 영광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은 채 학생들이 ㉤최고봉의 정상에 선 화려한 모습만 보고 발레를 하려 한다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발레를 하려면 우선 발레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울 각오를 해야 합니다.”

- ① ㉠은 의미가 모호하므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홍나라는’으로 수정한다.
- ② ㉡은 ‘말하였다’의 주어가 없으므로 ‘그녀는’이라는 주어를 삽입한다.
- ③ ㉢은 ‘부상을 당했어도’와 호응이 될 수 있도록 ‘오직’으로 바꾼다.
- ④ ㉣은 통일성을 깨트리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므로 ‘최고봉의’를 삭제한다.

1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다의어’는 의미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갖는 단어를 말한다. 다의어의 다양한 의미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비슷한 말로 바꾸어 보는 것이다.

- ① 내가 생각하는 군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 머리에 떠올려 그려보다 (상상하다)
- ② 나는 그의 결정이 전적으로 옳았다고 생각한다.
⇒ 요소나 성질을 가르다 (분석하다)
- ③ 김씨의 체면을 생각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 마음에 두고 헤아리다 (고려하다)
- ④ 길상은 삼십 년도 더 되는 옛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기억을 살려 머리에 떠올리다 (회상하다)
- ⑤ 선생님은 나를 무척 조용하고 운순한 학생으로 생각하고 있다.
⇒ 그렇다고 여기다 (간주하다)

14. 문장 표현상, <보기>와 같은 유형의 잘못을 범한 것은? [1점]

<보 기>

철수의 장점은 성실하게 노력한다.

- ① 가까운 근처에서 잠잘 곳을 찾아보아라.
- ② 그 내용은 설명을 들으니 잘 이해되어졌다.
- ③ 너는 처음 하는 것치고 잘 하지 못하는구나.
- ④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은 ‘빠름’의 시대이다.
- ⑤ 초등학교 시절 나는 다른 아이보다 두 살이나 적다.

[15~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
리고 가시리잇고 나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날러는 엷디 살라 고
리고 가시리잇고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잡 와 두어리마
선 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② 설운넝 보내 노니 나
가시 도서 요쇼셔 나
위 증즐가 太平盛代(대평성대)

- 작자 미상, ‘가시리’ -

(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㉞길에 고운 님 여희 고
내 음 들 디 없어 넷 의 안 이다.
㉟저 물도 내 안 도다 우리 밤길 네눗다.

- 왕방연 -

(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는 서울로 가셨다. 이른바 대동 아전쟁이 한창 고비였던 때라 마취제도 변변히 없는 가운데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나에게 예쁜 필통과 글을 보내 주셨다. 필통은 입원 전에 손수 사신 것이지만 글은 어렵게 구해서 병문안 온 손님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귀한 것이라고 머리맡에 놓고 보시다가 끝내 잡숫지를 앉으시고 나에게로 보내 주신 것이다.

그 노란 글과 거의 함께 어머니는 하얀 상자 속의 유골로 돌아 오셨다. 물론 그 글은 어머니도 나도 누구도 먹을 수 없는 열매였다. 그것은 먹는 열매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의 태양이었고, 그리움의 달이었다. 그 향기로운 몇 알의 글은 어머니와 함께 묻혀졌다. 서울로 떠나시는 마지막 날 어머니는 나보고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 열한 살이었으니까 이젠 어머니의 ㉠다리를 주무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성장한 것이다. 정말 다리가 아프셔서 그러셨는지 혹은 막내라고 늘 걸려 하셨는데 그만큼 자란 것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혹은 내 손을 가까이 느끼시며 마지막 작별을 하려고 하신 것인지 확실치 않지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셨다.

왜 그랬던가. 어머니에게 나는 ㉡숙제를 해야 한다고 피를 부리고는 제대로 다리를 주물러 드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셨다. 나는 어머니의 신병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이다. 그것이 정말 마지막인지 몰랐던 것이다.

나는 더러 산소에 갈 때 글을 산다. 홍동백서(紅東白西)*의 그 색깔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색깔이지만 제상에다가도 글을 고인다. ㉢그리고 글을 살 때마다 나는 글값이 너무나 싼 것에 대해서 절망을 한다. 분노를 한다. 어머니가 머리맡에 놓고 가신 그 글은 지폐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내 이제 어디에 가 그 ㉣글을 구할 것이며 내 이제 어디에 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릴 수 있을까.

* 홍동백서(紅東白西) : 제사 지낼 때 제물을 차리는 격식으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차림을 이르는 말

- 이어령, ‘어머니와 글’ -

1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이 드러나 있다.
- ② 대상을 원망하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있다.
- ③ 현재의 삶보다는 미래의 삶을 중시하고 있다.
- ④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려는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⑤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새로운 의지를 다지고 있다.

16. <보기>의 화자 ‘갑’과 (가)의 화자 ‘을’의 대상에 대한 태도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새로 닦은 곳인 작은 서울을 사랑합니다마는
 입과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저를 사랑만 해주신다면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 고려가요, ‘서경별곡’에서

- ① ‘갑’은 냉소적인데 비해 ‘을’은 동정적이다.
- ② ‘갑’은 우호적인데 비해 ‘을’은 비판적이다.
- ③ ‘갑’은 적극적인데 비해 ‘을’은 소극적이다.
- ④ ‘갑’은 순종적인데 비해 ‘을’은 권위적이다.
- ⑤ ‘갑’은 미래지향적인데 비해 ‘을’은 과거지향적이다.

17. <보기>는 독자가 (가)의 화자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 중, (가)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보 기 >

저도 예전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을 해 본 경험이 있어서 당신의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이별의 현실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버리고 떠나려는 임이 얼마나 원망스러운지요? ㉡당신은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임에게 불평도 많이 했지요. ㉢하지만 당신은 임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떠나는 임을 붙들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오히려 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 이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언젠가 임은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차마 붙잡지 못한 당신의 애뜻하고 서글픈 그 마음이야말로 소중한 사랑의 한 자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8. <보기>의 관점에서 (나)를 감상한 것은?

< 보 기 >

문학 작품을 시대적 현실, 작가, 독자보다는 작품 속에 내재된 요소를 바탕으로 감상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작품의 짜임새, 표현, 언어의 의미, 운율 등을 주요 탐구 대상으로 한다.

- ① 이별을 거부하지 못했던 작가의 처지가 시조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② 당시 선비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화자의 슬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 ③ ‘천만 리’는 물리적 거리라기보다는 정서적 거리가 그만큼 멀다는 의미이다.
- ④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이 시를 창작할 당시에는 세상이 어지러웠던 것이 분명하다.
- 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작가의 아픔과 고통에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19. ㉠과 발상 및 표현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山)새처럼 날아갔구나!
- 정지용, ‘유리창’에서
- ②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 눈 속에 파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에서
- ③ 아랫목에 모인 / 아홉 마리의 강아지야 / 강아지 같은 것들아. / 굴욕과 굶주림의 추운 길을 걸어 / 내가 왔다. / 아버지가 왔다. / 아니 십구 문 반(十九文半)의 신발이 왔다.
- 박목월, ‘가정’에서
- ④ 설별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 산(山)뿔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 산(山) 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 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에서
- ⑤ 내 마음은 한 쪽의 기(旗) / 보는 이 없는 시공에 / 없는 것 모양 걸려 왔더니라. // 스스로의 혼란과 열기를 이기지 못해 / 눈 오는 네거리에 나서면, // 눈길 위에 / 연기처럼 덮여 오는 편안한 그늘이여, / 마음의 기는 / 눈의 음악이나 듣고 있는가.
- 김남조, ‘정념의 기’에서

20. ㉡과 같이 표현한 이유는? [1점]

- ① 어머니의 사랑을 갚을 수 없다는 회한 때문에
- ②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한다는 허탈감 때문에
- ③ 이해 타산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실망감 때문에
- ④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점차 사라진다는 절망감 때문에
- ⑤ 어머니의 사랑이 헛되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21. 위 글 ㉠~㉣ 중, <보기>의 조흥감과 기능이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반중(盤中)* 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가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 반중(盤中) : 쟁반 가운데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광고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상업주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광고는 단순히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지 않는다. 광고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결합시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현실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그런 면에서 광고는 화면상으로 드러날 것들보다 더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면 단란한 가정을 광고에 이용할 경우 실제 가정을 찍기보다 ㉠전형적인 가정을 만들거나 전형적으로 보이는 가정을 보여준다. 어떤 광고든 광고는 그 수용자가 실제성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해서 안 된다. 오히려 실제보다 더 실제답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광고의 특징이다.

이를 위해 광고는 소비자의 욕망을 이용한다. 소비자는 광고를 보면 현실 속의 자신과 광고 속의 가치들 간의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괴리를 메우고 싶어한다. ㉡그 소망이 소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광고는 계속적으로 말한다. 그 과정을 통해 광고는 궁극적으로는 그 광고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소비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끊임없이 확인시켜 준다. 그러기에 광고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비자는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 나간다. 심지어 인간 관계, 의사 소통의 성패도 소비를 통해서 가능된다. 이런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광고에 나오는 특정한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다른 이들과의 '차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광고에 나오는 제품을 소비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소비자는 덩달아 소비하도록 자극하는 것이 광고인 것이다. 광고는 같은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이야말로 개성적인 행위를 주시시켜 준다. 예를 들면 광고에 나오는 장면처럼 ㉢브랜드 커피를 들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인생을 더욱 감미롭게 즐기는 것은 멋있는 일이라고 광고는 말한다.

이런 광고의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인쇄광고, 라디오 광고, 텔레비전 광고 등이 그것이다. 이런 광고들은 그럴듯한 효과를 살리기 위해 두 가지의 전략을 구사한다. 하나는 이미지를 '변형'시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변형된 이미지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멋있는 남성복을 입은 모델을 본 소비자들은 남성복을 입으면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두 번째의 전략은 광고는 그럴듯하게 변형시킨 이미지가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소비자들에게 '약속'시켜 주는 것이다. 즉, 해당 남성복을 구매함으로써 성공과 멋을 보장받을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이런 변형과 약속을 통해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해 주기보다 전혀 새로운 사용 가치를 알려주려고 한다. 이것이 광고의 미학이다. 상품이 지니고 있는 원래의 사용 가치보다 훨씬 우월한 ㉥사랑이나 성공 등 새로운 사용가치를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 광고인 것이다.

이런 모습 때문에 광고는 상업주의적 성격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평가받아 왔다. 따라서 우리는 광고를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광고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찾아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수용자로서의 눈을 길러야 한다.

22. 위 글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질문은?

- ① 광고와 현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 ② 광고는 어떠한 경향으로 변천해 왔는가?
- ③ 광고를 대할 때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
- ④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 ⑤ 광고 효과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2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복지원이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② 최첨단 산업이 열려 가는
무한 기술의 시대
그 길을 ○○ 기업이 선도합니다.
- ③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지 반백 년
○○ 전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도 연구실의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 ④ 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50년 외길을 걸어온 ○○ 기업,
철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⑤ 뽀얀 아기 피부가 부럽지 않으세요?
○○ 화장품이 당신의 피부를 가꾸어드립니다.
누구보다도 탄력 있는 피부는 당신의 행복입니다.

24. ㉦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점]

- | | |
|-------|-------|
| ① 심미성 | ② 논리성 |
| ③ 상업성 | ④ 주체성 |
| ⑤ 공익성 | |

25. 논지의 흐름으로 보아, ㉠~㉥ 중 성격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위 글의 논지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반세기를 이어온 명가의 자존심
당신의 성공을 약속합니다.**

- ① 상품의 질과 성공은 관련이 없어.
- ② 명차라도 구매하기 전에 여러 정보를 살펴야 해.
- ③ 성공하기 위해서는 멋진 차가 필요할 수도 있겠군.
- ④ 외형적 이미지가 상품의 질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 ⑤ 오랜 전통을 가진 회사의 차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야.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신체 언어는 인간이 움직이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부분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의사 전달 수단이다. 즉, 신체 언어는 인간의 의도적인 표정이나 몸짓을 통하여 언어적 의사 전달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단이다. 그러나 ㉠어떤 뜻을 전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심적 상태나 외부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신체적 움직임은 신체 언어라고 할 수 없다.

신체 언어는 어휘 면에서 음성 언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음성 언어가 각 민족에 따라 다르고, 같은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더라도 지역에 따라 방언이 있고,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개인 방언의 차이가 존재하듯이 신체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또한 음성 언어에 동음어와 동의어가 있듯이 신체 언어에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음성 언어의 어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성·성장·소멸하는데 신체 언어도 이런 점에서 음성 언어와 비슷하다.

신체 언어는 민족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 신체의 어떤 동작이 의미하는 바가 우연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회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흔히 엄지와 검지의 끝을 대고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면 일반적으로 ‘좋다, 잘 되었다’와 같은 긍정적인 의미이다. 그런데 프랑스 남부에서는 ‘없다, 무가치’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돈’을 의미해 왔는데, ‘잘 되었다, 좋다’라는 외래 의미가 들어와 쓰이면서 한 동작이 두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반면 음성 언어에서의 동의어처럼 한 의미가 여러 형태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인사하는 행위로 악수, 절, 껴안기, 불에 입맞추기 등이 그것이다. 서구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악수가 일반화되었는데 악수는 지위, 신분, 나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동등한 행동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다. 이는 다른 인사 방법과 비교해 볼 때 최근에 나타난 인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몸을 낮추어 존경심을 나타냈던 예전의 인사법과는 차이가 있다.

신체 언어는 표현할 수 있는 몸의 부위와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신체의 부위나 행동이 표현 의미와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나라마다 비슷한 표현 동작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신체 언어 어휘가 많다. 예를 들어 ‘미쳤다’라는 의미를 영국에서는 ‘머릿속의 나사가 잘 조여지지 않고 풀렸다’는 뜻으로 검지를 이마의 옆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같은 의미를 일본에서는 검지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머리 앞에서 돌려 표현한다.

이러한 신체 언어는 발화자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독립된 의사 소통까지도 수행해 낼 수 있다.

27. 위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신체 언어만으로도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 ② 신체 언어는 음성 언어보다 어휘가 다양하다.
- ③ 신체 언어는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 ④ 동일한 신체 언어라도 다양한 의미로 쓰일 수 있다.
- ⑤ 신체 언어는 문화의 전파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 <보기> —

- 교사** :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 길동** : 저요!
- 교사** : (두리번거리며) 누가 말했나요?
- 길동** : ㉠(손을 번쩍 들며) 저요!
- 교사** : 음, 그래. 길동이로구나. 나와서 발표해 보세요.

- ① 의미가 없는 단순한 행위이다.
- ② 발화의 내용을 변질시키고 있다.
- ③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 ④ 발화자의 불필요한 언어적 행위이다.
- ⑤ 발화자의 언어적 행위를 보충하고 있다.

29.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두 팔로 하트 모양을 그려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
- ② 부정을 표시하기 위해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행위
- ③ 친구와 약속을 하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거는 행위
- ④ 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윙크를 하는 행위
- ⑤ 몸의 통증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는 행위

3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점]

— <보 기> —

티베트에는 모자를 벗고 혀를 내밀어 ‘만가움과 존경’을 나타내는 인사법이 있다. 우리가 만일 티베트인의 그런 인사를 받는다면 그렇게 기쁘거나 반갑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의 인식 속에는 혀를 내민다는 것이 상대를 놀리는 행위가기 때문이다.

- ① 민족마다 다른 신체 언어도 뜻이 일치할 때가 있군.
- ② 신체 언어가 복잡하니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군.
- ③ 의사 전달 수단으로서의 신체 언어가 가장 경제적이군.
- ④ 심리 상태의 변화에 따라 신체 언어의 의미가 달라지는군.
- 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체 언어가 어디서나 통용되는 것은 아니군.

[31 ~ 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의 터진 두 면을 둘러쌌다.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 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도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개다.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山) 개의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간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죄어들었다. 눈 앞의 새파란 불이 빠져 나갈 틈을 엿보듯이 획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간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 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서 나오는 불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불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의 가슴 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도 새끼 뺨 것을 차마?

이 때에 누구의 입에선가, 때려라! 하는 고향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간난이 할아버지의 양 옆 사람들이 주옥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간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종아리 곁을 새어 나가는 것을 느꼈다.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빈 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간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주반이웨다래.”

하는 것은 동장네 절가였다.

그러자 저편 어둠 속에서 궁금한 듯 큰 동장의,

“어떻게들 됐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파투웨다*”

절가의 말에 크고 작은 동장이 한꺼번에 지리는 목소리로,

“파투라니?”

하는 소리에 이어 큰 동장이 이리로 걸어오는 목소리로,

“틈새를 낸 놈이 누구야?”

하는 결난 소리가 들려왔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옆의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좀 뒤에 역시 큰 동장의 결난 목소리로,

“늙은 것은 웨데야 해, 웨데야 해.”

하는 소리가 집 안에까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있는 지 한 달쯤 뒤, 가을도 다 끝나고 이제는 겨울 나무 준비로 바쁜 어느 날, 간난이 할아버지는 서산 너머의 옛날부터 험한 곳이라고 해서 좀처럼 나무꾼들이 드나들지 않는, 따라서 거기만 가면 쉽게 나무 한 짐을 해울 수 있는 여울골로 나무를 하러 갔다. 손쉽게 나무 한 짐을 해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한 옆에 눈을 준 간난이 할아버지는 거기 웬 짐승의 새끼가 몽켜 있는 걸 보았다. 이게 범의 새끼가 아닌가 하고 놀라 자세히 보니, 그것은 다른 것 아닌 잠든 강아지들이었다. 그리고 저만큼에 바로 신둥이 개가 이쪽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앙상하니 뼈만 남아 가지고.

간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계로 가까이 갔다. 다섯 마리가 되는 강아지는 벌써 한 스무 날은 녀석히 됐을 성싶었다. 그러자 간난이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속으로 놀라고 말았다. 잠이 들어 있는 다섯 마리 강아지 속에는 틀림없는 누렁이가, 검둥이가, 바둑이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러나 다음 순간, 이견 놀랄 일이 아니라 웅당 그럴 일이라고, 그 일견 험상궂어 보이는 반백의 털석부리 속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었다. 잠만에 그 곳을 떠나는 간난이 할아버지는 오늘 예서 본 일은 아무한테나, 집안 사람한테도 이야기 말리라 마음먹었다.

이것은 내 중학 이삼 년 시절 여름 방학 때 내 외가가 있는 목넘이 마을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 그 때 간난이 할아버지니 김 선달이니 차손이 아버지가 서산 앞 우물가 능수버들 아래에 일손을 쉬며 와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끝에 한 이야기다. 간난이 할아버지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해 나가는 도중 벌써 수삼 년 전 일이라 이야기의 앞뒤가 바뀐다는가 착오가 있으면 여럿이 서로 바로잡고, 빠지는 대목은 서로 보태며 하는 것이었다.

간난이 할아버지는 여울골에서 강아지를 본 뒤부터는 한층 조심해서 누가 눈치 채지 못하게 나무하러 가서는 이 강아들을 보는 게 한 재미였다.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보리범벅이 었으나, 그 부스러기를 집안 사람 몰래 가져다 주기도 했다.

* 파투웨다 : 실패했습니다

- 황순원, ‘목넘이 마을의 개’ -

3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이 작품은 ‘신동이’라는 개를 주인공으로 한 우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학 생 : _____

- 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②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③ 인간의 순수한 삶에 대한 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 ④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삶의 비애라고 생각합니다.
- ⑤ 인간의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32. 위 글에 나타난 ‘간난이 할아버지’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신중하다.
- ② 이해심이 많다.
- ③ 자립심이 강하다.
- ④ 마음이 따뜻하다.
- ⑤ 생명을 중시한다.

33. 위 글을 영상물로 만들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 면	구 상
①	동네 사람들이 신동이를 향해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가는 장면	카메라가 신동이를 쫓는 마을 사람들을 따라간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배경 음악
②	할아버지가 신동이의 눈에서 새파란 불을 발견하는 장면	신동이에게 물릴까봐 공포에 질린 할아버지의 얼굴 표정이 드러나도록 한다.
③	동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비난하는 장면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을 방언으로 실감나게 연기하도록 한다.
④	간난이 할아버지가 신동이와 강아지들을 발견하는 장면	놀란 할아버지가 이내 안도하는 표정을 연기하도록 한다.
⑤	간난이 할아버지가 강아지들을 돌보는 장면	평화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한다. 잔잔한 배경 음악

34. [A]의 서사적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이야기의 사실성을 더해 주고 있다.
- ② 극적 반전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③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복선이 나타나 있다.
- ④ 새로운 사건 전개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⑤ 장면 전환을 통해 긴박감이 조성되고 있다.

35. ㉠에서 ‘신동이’의 처지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1점]

- ① 설상가상(雪上加霜)
- ② 결초보은(結草報恩)
- ③ 구사일생(九死一生)
- ④ 자업자득(自業自得)
- ⑤ 동분서주(東奔西走)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선 백자에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미가 담겨 있다. 조선 백자에 그려진 문양은 중국의 것과는 다른 모습이 보인다. 조선 초기의 청화백자들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따라서 그릇의 입 부분과 밑 부분을 돌려가면서 연꽃 문양을 그려 놓거나 꽃 문양 등을 뿔뿔하게 그려 넣었다. 그러나 이렇듯 딱 차게 그리는 것은 생략이나 단순함을 좋아하는 조선인의性情(性情)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다. 조선 도공들은 곧 조선의 예술혼을 발현하기 시작하여 15세기 후반이 되자 점차 단순한 문양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림들도 뿔뿔하게 그리지 않고 여백을 많이 두어 여유로운 느낌이 들도록 했다. 이는 ㉠무엇이든 우리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한국인의性情(性情)이 유감없이 발휘된 예이다.

백자의 문양은 점차 민화적인 요소가 더해지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서민적으로 변해갔다. 17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백자철화호로문(白瓷鐵畫虎鷲紋)을 보면 호랑이가 마치 고양이처럼 친진스럽고 익살맞게 그려져 있다. 호랑이와 더불어 조선인의 큰 사랑을 받았던 용을 지네처럼, 심지어는 돼지처럼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 외에도 학이나 봉황, 혹은 아주 드물게는 까치, 호랑이 등도 그렸는데, 어떤 동물을 그리는 우리 서민들의 익살과 여유, 친진난만함은 유감 없이 발휘되었다.

조선 백자는 모양에서도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여 준다. 특히 백자 항아리의 경우 그 형태가 비례에 어울리지 않게 대담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백자철화포도문 항아리가 있다. 이 백자 항아리는 산화철을 사용하여 다자(多子)를 상징하는 포도 문양을 그렸는데, 이 항아리에서 특징적인 것은 포도 그림이 항아리의 윗부분에 치중되어 있고 밑의 대부분은 여백으로 남겨 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꼭 찬 것보다 빈곳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조선조 상층민들의 미의식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이 항아리를 보면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이유는 각기 다른 그릇 두 개를 붙여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도자기는 양반 계층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보아 점잖은 양반들도 그 바탕에는 자유분방한 미의식을 가졌다는 점이 흥미롭게 여겨진다.

이런 미의 완성은 조선 후기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달항아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달항아리는 숙종대 후반에 서서히 나타나는데, 영조대에 오면 대부분의 구형(球形) 항아리가 달항아리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달항아리는 단순한 형태와 단순한 백색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보아도 질리지 않는 매력이 있다. 또한 달항아리에서는 비대칭의미를 엿볼 수 있다. 이그로도 포도문양 백자처럼 두 개의 사발을 옆으로 붙인 다음 윗부분만 처리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양쪽은 정확히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묘한 불균형의 모습, 이것이 이 도자기의 참맛이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한국적인 정서가 한 몸에 ㉡배어 있는 최고의 명품이 바로 달항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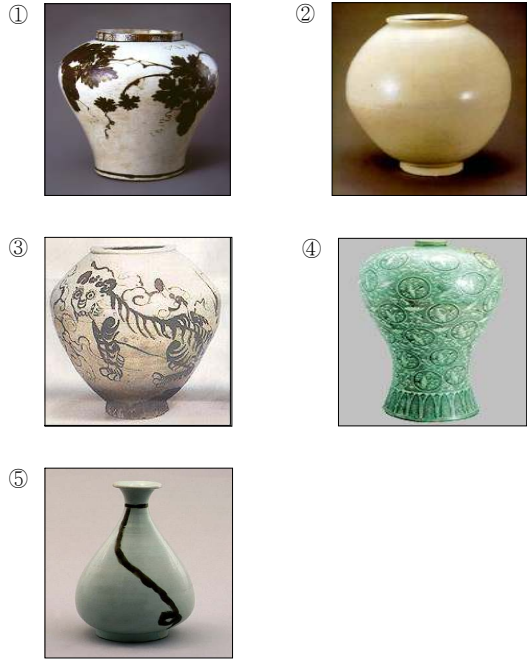
36. 위 글을 바탕으로 기사문을 쓰고자 한다.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선 백자에 나타난 미의식
- 균형을 중시한 조화미
- ② 조선 백자에 나타난 한국미
- 격식을 벗어난 자유분방함
- ③ 조선 백자에 나타난 주술성
- 문양속에 담긴 현실적인 소망
- ④ 조선 백자에 나타난 서민 의식
- 해학과 과격을 통한 현실 풍자
- ⑤ 조선 백자에 나타난 색채미
- 질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색미

37.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돌 문화를 고려하여 ‘돌집대’를 만들었다.
- ② 피자에 김치를 섞어 ‘김치 피자’를 만들었다.
- ③ 냉장고를 응용하여 ‘김치 냉장고’를 만들었다.
- ④ 역사적 기록을 참고하여 ‘거북선’을 만들었다.
- ⑤ 중국의 마패자를 변형하여 ‘한복 마고자’로 만들었다.

3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에 해당하는 것은?



39.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눈에 모를 배게 심었다.
- ② 그 사람은 욕설이 입에 배어 있다.
- ③ 이제 일이 손에 배어 있는 것 같다.
- ④ 민요에는 우리 민족의 한이 배어 있다.
- ⑤ 계단을 오르내렸더니 다리에 알이 배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땅과 바다와 하늘이 태초부터 우리 가까이 존재했듯이 나노^① 세상은 우리 주변에 항상 같이 있었다. 21세기의 첨단 기술이라는 나노 기술은 우리 주변에 있었던 작은 세상의 재발견에 불과하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 기술로 인해 나노미터 크기의 물체를 관찰하거나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우리는 주변에 나노 기술에 바탕을 둔 자연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럼, 자연 속에 있는 여러 나노 현상 중에서 연꽃잎이 감추고 있던 작은 세계를 살펴보자.

연꽃잎에 떨어진 빗방울이나 아침 이슬은 잎을 적시지 못하고 동그랗게 뭉쳐서 또르르 굴러 떨어진다. 연꽃잎이 가진 이런 특

정을 학술적으로 ‘연꽃잎 효과’라 한다.

㉠연꽃잎이 다른 풀이나 나뭇잎과는 달리 물에 젖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꽃잎이 물에 젖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면이 소수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꽃잎 표면이 소수성을 띠는 것은 단순히 표면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잎의 표면이 티끌 크기의 작은 돌기로 덮여 있기 때문이다. 연꽃잎은 육안으로는 다른 잎들보다 훨씬 매끄럽게 보이는데, 나노 크기를 볼 수 있을 만큼 확대하면 티끌만큼이나 작은 돌기들이 표면을 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나노 세상의 비밀이 숨어 있다. 이처럼 표면이 미세한 돌기로 덮여 있으면, 표면 장력이 크고 작용에 관계없이, 조그만 흔들림에도 물방울이 굴러 떨어질 정도로 소수성을 지니게 된다. 즉 미세한 돌기에 의해 물방울이 표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워낙 적으면, 윤활성이 큰 표면 위에서처럼 물방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넓은 연꽃잎은 실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물방울이 모이고 합쳐져서 무거워지면 굴러 떨어지게 된다. 이때 잎에 앉은 먼지들도 물에 씻겨서 덩달아 떨어진다. 따라서 ‘연꽃잎 효과’는 나노 크기의 미세한 돌기 때문에 나타나는 소수성이 일반적인 현상보다 더 심한 것을 말하는데 이를 ‘초소수성’이라 한다.

이와 같은 ‘연꽃잎 효과’를 실생활에 이용한 것으로 ㉡첨단 기능성 의복이 있다. 하얀 면바지에 콜라를 흘려도 손으로 툭툭 털어 내면 깨끗한 원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가 묻지 않는 섬유는 어떻게 발명했을까? 이 기술의 핵심은 면 섬유에 많은 양의 아주 작은 솜털을 붙이는 데 있다. 섬유 표면에 나노휘스커*를 첨가하여 영구적인 ‘연꽃잎 효과’를 얻는 것이다. 면 섬유의 단면을 나무 줄기로 생각하고, 이 위에 원자 단위의 나노휘스커 솜털을 코팅하는 것이다. 섬유에 나노휘스커를 완벽하게 접촉시키고, 접촉된 나노휘스커가 솜털처럼 솟아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나노휘스커가 가공 용액 속에서는 구(球) 모양을 이루고 있다가, 섬유 표면에 부착되면 수직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열처리로 용액을 증발시키면, 섬유와 영구히 결합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나노휘스커로 된 작은 솜털들로 에어쿠션이 만들어지면, 이것이 액체나 불순물을 강하게 떠받들어 섬유에 닿지 않고 굴러 떨어지게 된다. 현재 합성에 성공한 나노휘스커는 길이가 수십 나노미터이며, 탄소 원자들로 유연하게 설계하여 만들었다. 겉모양은 원래 섬유와 똑같고, 질감도 그대로 유지되며, 보풀도 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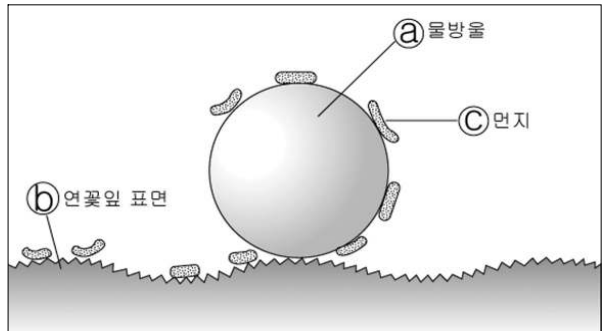
자연에는 무한한 나노 세상이 펼쳐져 있다. 우리는 ㉢자연 현상 속의 원리를 찾아내어 실생활에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

- *나노(nano) : 1나노미터는 1미터의 10억분의 1이다. 기호는 nm.
- *소수성(疏水性) : 물과 친하지 않는 성질
- *표면장력(表面張力) :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
- *나노휘스커(nanowhisiker) : 길이가 단지 10nm이며 몇 개의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작은 구조물. 이 구조물은 섬유에 액체 얼룩이 방울로 맺혀 있다가 바로 굴러 떨어지게 만든다.

40.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② 상반되는 견해를 소개한 후 절충안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부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한 후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41. 그림을 참고하여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가 ㉠을 밀어내기 때문이다.
- ② ㉠의 표면 장력이 크기 때문이다.
- ③ ㉠의 열로 인해 ㉠가 증발하기 때문이다.
- ④ ㉠과 ㉠의 접촉 면적이 워낙 적기 때문이다.
- ⑤ ㉠에 비해 ㉠가 약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기 때문이다.

42. 위 글을 바탕으로 ㉡에 대한 광고문을 <보기>와 같이 작성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아주 획기적인 옷이 나왔습니다. ㉠이 옷은 커피를 흘려도 세탁이 필요 없어요. ㉡순수 천연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불순물이 쉽게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옷의 질감도 항상 그대로 유지되지요. ㉤보풀도 일지 않아요. 한 번 구입하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3.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밀가루에 소다를 넣어 빵을 만들었다.
- ②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빨래 비누를 만들었다.
- ③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을 응용하여 텐트를 만들었다.
- ④ 페타이어를 가공하여 보도에 깔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였다.
- ⑤ 도마뱀 발바닥의 조직을 연구하여 달라붙는 신발을 개발했다.

[44 ~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푹푹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 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나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
 까닭없이 마음 외로울 때는
 노오란 ㉢민들레꽃 한 송이도
 애처롭게 그리워지는데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소리쳐 부를 수도 없는 이 아득한 거리(距離)에
 ㉣그대 조용히 나를 찾아오느니
 사랑한다는 말 이 한 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A]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조지훈, '민들레꽃' -

(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져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져으며 져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져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져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 '흔들리며 피는 꽃' -

4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아 성찰과 자기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③ 이상 실현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 있다.
 - ④ 비극적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는 (가)에 대해 나는 대화이다. 잘못 이해한 것은?

<보 기>

㉠ **원형** : 이 시에는 특별히 반복되는 부분이 없어서 운율이 느껴지지 않아.

㉡ **동업** :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라는 표현을 보면 화자는 '모란'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 같아.

㉢ **지선** : 그런 면에서 '푹푹'이라는 표현은 화자의 상실감이 더욱 잘 드러나는 시어인 것 같아.

㉣ **태환** : '삼백 예순 날'은 객관적인 시간 표현이라기보다는 화자의 감정의 깊이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어.

㉤ **채운** :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표현에는 슬픔과 기대감이라는 복합적인 심정이 들어가 있어.

- ① ㉠ ② ㉡ ③ ㉢ ④ ㉣ ⑤ ㉤

46. ㉠~㉤ 중, 함축적 의미가 다른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47. (나)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이형기, '낙화'에서
- ②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에서
- ③ 그리운 그의 모습 다시 찾을 수 없어도 울고 간 그의 영혼 들에 언덕에 피어날 지어이.
 - 신동엽, '산의 언덕에'에서
- ④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미지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 김춘수, '꽃을 위한 서시'에서
- 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 이육사, '광야'에서

48. (다)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련을 이겨내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어.
- ② 방황하지 않기 위해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겠군.
- ③ 세상을 긍정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군.
- ④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인정이 필요하겠군.
- ⑤ 성공을 위해서는 반복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군.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햇빛은 무색[백색광]인데 무지개는 왜 여러 색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무 것도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한 빛인 백색이 빛의 본성이라고 보고, 색채는 백색과 어둠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혼합비에 따라 그 색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검은 솜을 태우면 빨간빛이 나오는데 이것은 불에서 나오는 빛과 솜의 어둠이 섞인 결과라고 했다. 또한 무지개가 일곱 가지 색깔로 나뉘어지는 현상은 프리즘의 두꺼운 부분을 통과한 빛이 얇은 부분을 통과한 빛보다 유리에 함유된 어둠을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각은 17세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뉴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입사선*이 고유한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하여 색채는 백색광과 어둠의 배합이라는 이론을 부정했다. 뉴턴은 1672년에 발표된 ‘빛의 색채에 관한 새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프리즘을 이용하여 백색광이 여러 가지 단색광*으로 분리되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단색광이 굴절성이 다른 여러 가지 입사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뉴턴은 이와 같은 생각을 다음과 같은 프리즘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먼저, 검은 종이에 구멍을 뚫어 햇빛을 통과시킨 후, 그 빛을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켜 단색광을 얻는다. 이 단색광을 다시 새로운 검은 종이의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킨다. 이후, 단색광을 검은 종이의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키는 과정을 2회 반복한다. 여기서 나온 단색광을 두 번째 프리즘을 지나게 한다. 그 결과 마지막 검은 종이의 구멍을 통과한 빛이 보라색이면 더 많이 꺾이고, 붉은색이면 더 적게 꺾여 스크린에 나타났다. 이 실험으로부터 뉴턴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에 따라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뉴턴은 여러 가지 물체에 단색광을 비추어 보았다. 종이, 재, 납, 구리, 금, 은, 동, 유리, 파란색 꽃, 물방울, 공작새의 깃털 등 다양한 물체들에 단색광을 비추 본 뉴턴은 붉은 빛을 비추면 붉은 색으로 보이고, 파란빛을 비추면 파란색으로, 초록빛을 비추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을 관찰했다. 이를 통해 뉴턴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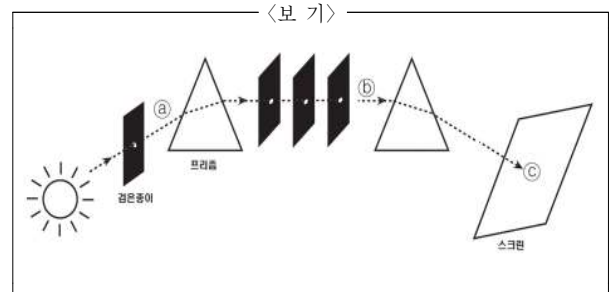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서구 사회를 지배해온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 벗어나려던 당시의 분위기에 큰 기여를 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 방식의 한 축을 무너뜨린 것이었다. 한편, 이전의 실험들은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기체의 압축, 혹은 닭의 발생과 같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루었다. 반면에 뉴턴의 프리즘 실험은 간단해 보이지만 우리의 일상 감각을 넘어선 어떤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일상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현상 속에 존재하는 사실을 인공적인 조작을 통해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러한 뉴턴의 실험 방식은 이 후 수많은 과학 실험의 모델이 되었다.

* 단색광(單色光) : 스펙트럼에 의하여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단일한 색
* 입사선(入射線) : 입사광선. 하나의 매질(媒質)을 통과하여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들어가는 광선

4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17세기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 ② 뉴턴은 굴절 정도에 따라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 ③ 뉴턴의 실험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더욱더 발전시켰다.
- ④ 뉴턴 이전의 실험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다루었다.
- ⑤ 인공적인 조작에 의한 실험은 이 후 수많은 과학 실험의 모델이 되었다.

※ <보기>는 [A]의 실험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50번, 51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50. a~c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 | | |
|-------|-----|-----|---|
| | a | b | c |
| ① 백색광 | 붉은빛 | 붉은색 | |
| ② 백색광 | 백색광 | 단색광 | |
| ③ 백색광 | 보랏빛 | 파란색 | |
| ④ 단색광 | 단색광 | 백색광 | |
| ⑤ 단색광 | 파란빛 | 파란색 | |

5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색이란 인공적 조작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체 고유의 성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② 색이란 물체의 고유한 성질이 아니라 빛에 의해 보여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③ 색이란 검은 종이 구멍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④ 색이란 단색광과 어둠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혼합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⑤ 색이란 프리즘에서 나온 빛을 검은 종이 구멍에 통과시켜 만든 인공적인 입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52. ㉠과 가장 유사한 추론 방식은?

- ① 봄이 오면 뒷산에 진달래가 핀다. 이제 봄이 왔다. 뒷산에 진달래가 필 것이다.
- ② 황소개구리가 들어와 참개구리를 몰아내듯이, 외래어가 들어와 우리말을 대체하고 있어.
- ③ 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아버지가 MP3를 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경시대회를 망쳐 버렸다. 이번에도 MP3를 갖기는 틀린 것 같다.
- ④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다 물이 넘치는 현상을 보고, 여러 액체가 든 용기에다 물체를 넣어보는 실험을 거듭했다. 마침내 부력의 원리를 정립하였다.
- ⑤ 어떤 물고기는 거친 물살을 타고 절벽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도 이와 다를 게 없다. 비록 고난이 닥치더라도 세찬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형주땅 홍시량은 무남독녀 계월을 남장 시켜 기른다. 계월은 오랑캐의 반란으로 부모와 헤어져 고난을 겪다가 여공의 구조를 받는다. 후에 계월은 평국으로 개명하고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과거에 급제한다. 나라에 오랑캐가 침범하자 계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전하여 승전하여 공을 세운다.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지자 천자는 계월을 보국과 혼인시키고, 보국은 계월을 여자라는 이유로 괘시한다.

이 때 평국이 규중에 홀로 있어 매일 종을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더니 사람이 나와 천자의 명을 전하거늘, 평국이 놀라 급히 여복을 벗고 조복으로 사관을 따라 천자 앞에 엎드리니 천자 기뻐하사 이르기를,
 “경이 규중에 처한 후로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사모하더니 이제 경을 보매 기쁘기 측량 없거니와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 초 양왕(兩王)이 반란하여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나아가 나라의 사직을 안보하게 하라.”

하신대 평국이 엎드려 아뢰기를,
 “신첩 외람하와 폐하를 속이옵고 공후 벼슬이 높아 영화로 지내옵기 황공하오되 죄를 사하옵시고 이대도록 사랑하시오니 신첩이 비록 우매하오나 힘을 다하여 폐하의 성은을 만분지 일이나 갚고자 하오니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대, 천자 크게 기뻐하사 친병만마를 즉시 초발하여 상림원에 진을 치고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되, ‘지금 적병이 급할 때 중군*은 바빠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하였거늘, 보국이 군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쭙오되,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랴고 하오니, 이런 일이 어디 있소오리까?”

하니 여공이 말하기를,
 “내 전일에 너더러 무엇이랴 이르더냐. 계월을 괘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리오. 국사 지중(國事至重)하니 어찌 할 수가 없음이라.”

하고 바빠 감을 재촉하니 보국이 하릴없이 갑옷을 갖추고 진문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원수 분부하기를,
 “만일 영을 거역하는 자면 군법을 시행하리라.”

하니, 보국이 황겁하여 중군 처소로 돌아와 영 내리기를 기다리는지라. 원수 여러 장수들의 임무를 각각 정하고 추 구월 갑자일에 행군하여 십일월 초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삼일을 머물고 즉

시 오일에 천축산을 지나 연경루에 다다르니, 적병이 평원 광야에 진을 치고 명령하기를,
 “명령을 어기는 자면 세워 두고 베리라.”

호령이 추상(秋霜)같거늘 모든 장수와 군졸이 황겁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국도 조심이 무궁하더라.

이튿날, 원수 중군에게 분부하되,
 “수일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하니 중군이 명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 장검을 들고 적진에 외치기를,
 “나는 평국 중군 보국이라, 대원수의 영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러 하니 바빠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니 적장 운평이 초탕을 듣고 말을 빠르게 몰아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머리가 말 아래에 떨어지거늘, 보국이 승기(勝氣) 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보국이 칼을 날려 운경의 칼 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 든 채 말 아래에 떨어지거늘,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 적장 구덕지 대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향하며 달려올새, 난데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이 황겁하여 대하고자 하더니 경각에 적장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친여 곁 에워싸는지라 사세 위급하여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더니, 이때 원수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헤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고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새, 동에 번듯 서장(西將)을 베고, 남으로 가는 듯 북장(北將)을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을 한 칼로 소멸하고 본진으로 돌아올새,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 보국을 꾸짖어,
 “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수이 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하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 중군 :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괄하던 장수
 * 합 : 칼이나 창으로 싸울 때, 칼이나 창이 서로 마주치는 횡수를 세는 단위.

- 작자 미상, ‘홍계월전’ -

53. 위 글에 나타난 장면이 아닌 것은? [1점]

- ① 계월이 보국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
- ② 보국이 계월에 대해 분통해 하는 장면
- ③ 여공이 계월의 행위에 대해 화내는 장면
- ④ 보국이 계월의 명령에 놀라 절절매는 장면
- ⑤ 계월이 천자의 명을 따라 군대를 통솔하는 장면

54. 구술 면접 시험에서 위 글의 의미를 설명하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반 사회의 허례허식을 풍자한 작품입니다.
 - ② 일부다처제로 인한 폐단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 ③ 당대의 비합리적인 결혼 풍속을 비판한 작품입니다.
 - ④ 신분 차별로 인한 사회적 모순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 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보인 작품입니다.

55. 위 글의 창작시 고려했을 사항을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보 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구성한다. ㉡ 역사적 사건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전개한다. ㉢ 주제를 암시하는 상징적인 소재를 설정한다. ㉣ 등장 인물의 성격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한다. ㉤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내용을 담는다.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56. ㉠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군.
- ②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군.
- ③ 일의 형편을 보아 기회를 노리고 있군.
- ④ 거짓말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는군.
- ⑤ 노력해 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포기하려 하는군.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흔히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한다. 이러한 편견은 특정한 문화가 가지고 있는 현상들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그러한 시각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한다. 자기 문화와 다른 특정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인도인은 암소를 숭배한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인도인들이 굶주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암소 숭배의 전통 때문이며, 그러한 전통으로 인해서 농업 능률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산업화된 현대 농업 기술과 목축 기술에 익숙해 있는 서양인들에게는 인도인들의 암소 숭배가 터무니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행위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의 암소 숭배 관습

이 그 지역의 변덕스런 환경 및 소규모 농업 경제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인도의 환경과 소규모 농업 경제 조건에서는 소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그냥 놓아두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란 생각에서 ㉡암소 숭배 관습이 생겼다는 것이다. 인간이 직접 먹을 수 없는 볏짚, 겨, 풀, 쓰레기 등을 섭취하여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하기도 하고, 엄청난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 분뇨를 만들기도 하며, 인간을 대신하여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도의 소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도의 농업 체계는 저에너지와 소규모 가족 노동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소야말로 산업 사회에서의 트랙터와 비료, 연료 생산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인도의 농부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과 기아를 겪는 동안 소를 잡아먹고 싶은 유혹에 굴복해 버린다면, 실사 가뭄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소를 잡아먹게 되면 농사짓기에 좋은 날씨가 찾아와도 더 이상 토지를 경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힌두교의 암소 숭배 교리는 인도 농부들이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도인들이 쇠고기 먹기를 꺼리는 것은 종교상의 이유나 민족의 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생활의 절실한 필요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알려져 인도인들이 종교적 이유로 인해 소를 숭배한다는 오해를 받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인도 사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인도인들은 서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입장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 리하여 그들의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암소를 잡아 먹을 수 있는데도 암소 숭배로 인해 굶어 죽기까지 하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국민’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방인들의 주장은 인도 농부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오히려 인도 사람들은 소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인간은 자연과 사회에 적응하면서 문화를 만들어 왔다. 사회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적 특성은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되어 온 생활의 결과이며, 그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사회의 문화가 더 우수하고 어느 사회의 문화가 더 열등한가의 비교는 무의미하며, 특정 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5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대립된 견해를 제시한 후 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 ② 개념 정의를 통해 논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③ 권위자의 생각을 빌어 잘못된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 ④ 서로 다른 주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다.
- ⑤ 의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58.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군.
- ②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군.
- ③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군.
- ④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군.
- 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이군.

59. ㉠ :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세균 : 질병
- ② 동물 : 암소
- ③ 진보 : 보수
- ④ 서점 : 책방
- ⑤ 악어 : 악어새

60.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점]

— <보 기> —

중동 지방은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건조하여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하기에는 불가능한 곳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과일, 곡식을 주로 먹는 돼지와 식량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돼지 사육은 생존의 위협 그 자체였다. 그래서 성서와 코란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기(禁忌)한다.

- ① 종교는 문화적 특징을 결정한다.
- ② 종교의 교리는 절대적인 것이다.
- ③ 종교 교리는 생활 모습을 결정한다.
- ④ 문화적 현상은 보편 타당한 것이다.
- ⑤ 문화적 특징은 주어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